

# ‘극과 극’ 프로야구 마무리 투수들의 희비 엇갈린 출발

LG 고우석·SSG 김상수·두산 김강률, 2경기 등판 2세이브 챙겨  
삼성 오승환, 첫 등판부터 밀어내기 불넷주며 ‘흔들’...팀도 3연패

2021시즌 출발선을 막 통과한 마무리 투수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LG 트윈스와 SSG 랜더스, 두산 베어스는 시즌 초반 팽팽한 경기를 잡으면서 2연승을 수확,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다. 뒷문을 확실히 책임지는 마무리 투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LG 고우석은 벌써 2세이브를 챙겼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지난 4일 NC 다이노스전에서 2-1로 앞선 9회 등판해 3자 범퇴로 경기를 끝내고 1점 차 승리를 지켜냈다. 6일 KT 위즈전에서 3-2, 아슬아슬한 리드 속에 9회 마운드를 이어받아 공 6개로 1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다. 2019년 세이브 2위(35세이브)를 차지했던 그는 지난해 기록이 심했다. 그러나 올해는 출발부터 안정감 있는 피칭으로 제 역할을 확실히 해

주고 있다. SSG 유니폼으로 돌아온 김상수도 새 팀에서의 출발이 좋다. 지난해까지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김상수는 사인 앤드 트레이드 형식으로 지난 1월 SSG로 이적했다. 김원형 SSG 감독은 당초 마무리로 낙점했던 서진용의 구위가 올라오지 않자 4월 한 달간 김상수에게 마무리를 맡기기로 했다. SSG 마무리 투수로 첫 등판을 진땀 흘렸다. 그는 4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5-2로 앞선 9회 등판, 첫 타자 정훈에게 좌월 솔로포를 내줬다. 이어 안타와 불넷으로 2사 만루에 올렸지만 손아섭을 내야 땅볼로 처리하고 세이브를 챙겼다. 두 번째 등판은 수월했다. 6일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2-1, 살얼음판 리드 속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다. 새 팀에서 나선 2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를 수확했다. 이번 시즌 두산 베어스의 뒷문을 맡은 김강률도 2세이브를 챙기며 새 보직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두산은 지난해 마무리 투수로 고민이 많았다. 집단 마무리 체제를 가동해보기도 하고, 이영하를 마무리 투수로 기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실한 마무리를 찾지 못했다. 이번 시즌에는 경험이 많은 베테랑 김강률을 마무리로 낙점했다. 김강률은 4일 KIA 타이거즈전에서 9회 불넷과 안타를 내주기도 했지만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를 지켰다. 6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9회 2사 1루 위기에서 등판해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고 세이브를 올렸다. 반면 믿었던 마무리가 흔들리며



LG 고우석



삼성 오승환

아직 웃지 못한 팀도 있다. ‘끝판대장’ 오승환(삼성)은 시즌 첫 등판부터 고개를 떨궜다. 오승환은 6일 두산전에서 1/3이닝 1피안타 2볼넷 1실점으로 그쳤다. 1-3으로 뒤진 8회 1사 1, 2루에 등판한 오승환은 연달아 불넷을 내주며 밀어내기로 한 점을 한숨했다. 계속된 2사 만루에서는 박세혁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2점을 더 허용했다. 결국 오승환은 8회를 마치지 못하고 양창섭과 교체, 마운드를 내려 가야 했다.

오승환마저 무너진 삼성은 어느덧 개막 3연패에 빠졌다. 디펜딩 챔피언 NC도 첫 승을 신고 하지 못했다. 개막 첫 경기에서 LG에 패한 NC는 6일 롯데와 8회까지 5-5 팽팽한 승부를 펼치며 승리를 노렸다. 그러나 마무리 원종현이 무너지며 흐름을 한 순간에 롯데에 빼앗겼다. 9회 동점 상황에서 등판한 원종현이 연속 안타로 몰린 1사 1, 3루에서 지시안에게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맞아 실점했다. 이어 등장한 한동희에게 3점포가

지 한납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롯데로 넘어갔다. 결국 NC는 5-10으로 쓰라린 패배를 당했다. 물론 이제 시즌 시작일 뿐이다. 한 시즌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앞으로의 활약에 달려있다. 다만 첫 출발이 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게 됐다. 한편, 아직 마무리 투수를 써보지 못한 팀도 있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중 한 명인 정우람(한화 이글스)은 팀의 2연패 속에 아직 시즌 첫 등판이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

## 순천시청 박다솔, 도쿄행 청신호 켜졌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도선수권 금메달 획득...랭킹포인트 412점 획득 랭킹 16위 경창



여자 유도 국가대표 박다솔의 도쿄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다솔은 6일(현지시간) 키르키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도선수권대회 여자 52kg급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디오라 켈디요르바를 절반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회전에서 카자흐스탄 Nursulu를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누르고, 2회전에서 대만의 Lin Hsuan에 지도3개 반칙 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한 박다솔은 준결승에서 태국의 Kachakorn를 한팔 업어치기 절반과 소매들어 업어치기 절반 종합 한판승으로 완파하고 결승

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디오라를 안다리걸기 절반승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대회 우승으로 랭킹포인트 412점을 얻은 박다솔은 올림픽 랭킹 16위로 올라서며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판관불이 켜졌다. 순천시청 유도팀 김양호 감독은 “박다솔 선수가 이번대회 우승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며 “5월에 예정된 국내 올림픽대표 선발전과 6월 헝가리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준비도 철저하게 준비해 꼭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女축구 선수들, 올림픽 본선진출 의지 “은퇴 전에 꼭...”

이민아·이금민 각오 다져...오늘 중국과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PO 1차전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의 역사를 기대하는 한국 여자축구가 7일 도쿄올림픽을 향한 간절함 속에서 필승 의지를 다졌다. 풀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최종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른다. 도쿄올림픽 출전권 1장을 두고 중국과 홈팬더어웨이 방식으로 대결을 펼친다. 2차전은 13일 중국 쑤저우에서 벌어진다. 선수들은 지난달 22일부터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해 마지막 승부를 준비해왔다. 2012년부터 태극마크를 단 이민아(30·현대제철)는 7일 대한축구협회 통해 “중국과의 경기가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취소되면서 1년을 기다렸다. 선수들 모두 더 간절하고, 절실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A매치 60경기(14골)를 소화한 이민아는 경험이 많은 만큼 올림픽 문턱에서 좌절할까 걱정도 있다. 이민아는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이도 있다. 올림픽은 한 번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자축구가 처음으로 가본 길 것 같다”고 했다. 뉴스

이 “이제 경기가 얼마 안 남았다. 올림픽에 갈 수 있는 진짜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잡아야 한다”고 보냈다. 영국 무대에서 활약 중인 이금민(27·브라이튼 위민)도 “(올림픽은) 은퇴하기 전에 꼭 한 번 가고 싶은 대회”라며 “그동안 많은 언니들이 도전했다. 그 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오랜만에 하는데 선수들 모두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야 한다. 자신이 있다. 어린 선수들이 많지만 어리다고 해서 그냥 어린 게 아니다. 잘하는 선수들이다. 훈련장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격수들이 모두 빠르다. 빠른 선수들을 이용해서 공격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수비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가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민아는 “수비 압박 훈련을 많이 해서 좋아졌다. 또 스피드가 빨라진 것 같다”고 달라진 대표팀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평일 경기여서 팬들이 오시기 어려울 텐데 많이 오신다고 하니 기쁘고 감사하다”며 “보답하기 위해서 이기고, 준비한 걸 보여줘야 한다. 더 잘하고, 이기겠다.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뉴스

## 양현중, 오늘 마이너 캠프서 실전...빅리그 콜업 언제쯤

콜업 1순위 좌완 마틴 폼페



빅리그 진입을 꿈꾸는 양현중(33·텍사스 레인저스)이 마이너리그 대체 캠프에서 실전 등판에 나선다. 댈러스모닝뉴스는 7일(한국시간) “텍사스 마이너리그 대체 캠프 팀인 휴스턴 에스트로스 대체 캠프 팀과 8-9일 10이닝씩 2연전을 벌인다”며 경기에 등판할 투수 명단을 공개했다. 양현중과 드류 앤더슨, 브렛 마틴, 스펜서 패튼, 닉 빈센트, 헌터 우드 마이어, 매튜엘라, 폴 어벌라, 콜린 와일스와 함께 등판 예정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KBO리그 최고 좌완으로 활약하던 양현중은 텍사스와 스플릿 계약(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소속에 따라 조건이 다른 계약)을 맺고 빅리그에 도전장을 던졌다. 초정 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캠프에 참가한 양현중은 시범경기에 5차례 등판, 10이닝 12피안타(1홈런) 10탈삼진 3볼넷 6실점,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했다. 시범경기 초반 4경기에서 불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등 눈도장을 찍는 듯 했지만 결국 개막 로스터 26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양현중은 ‘텍스 스쿼드’에 포함돼 2-5일 텍사스의 시즌 첫 번째 원정길에 빅리그 팀과 동행하며 함께 훈련을 했지만, 로스터 진입 기회를 잡지는 못했다. 텍사스 산하 트리플A 팀의 연고지인 텍사스주 라운드록에 차린 대체 캠프에 합류해 훈련을 시작한 양현중은 대체 캠프에서 훈련과 실전을 치르면서 빅리그 진입을 넘본다. 텍사스는 시즌 초반 투수진이 붕괴되면서 고전하고 있다. 2. 3일 캔자스 시티 로열스와 원정 경기에서는 투수진이 각각 14실점, 11실점하면서

개막 2연패에 빠졌다. 텍사스의 팀 평균자책점은 7점대로, 최하위권이다. 텍사스 빅리그 투수진의 부진이 양현중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또 다른 좌완 볼펜 요원 브렛 마틴의 콜업 가능성이 높다. 댈러스모닝뉴스는 7일 “스프링캠프 내내 허리 통증에 시달려 10일 휴스턴 예비팀과의 경기에 등판해 2이닝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등판 결과가 좋으면 이번 주말에 현역 로스터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KT 허훈, 최초 어시스트·국내 득점 1위 동시 달성

프로농구 부산 KT의 가드 허훈(26)이 1997년 출범 후 최초로 득점(국내선수)과 어시스트 부문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6일 막을 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허훈은 총 51경기에 출전해 평균 15.6점 7.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허훈은 득점 부문(국내선수)에서 최우수선수(MVP)상을 경쟁 중인 송교창(KCC)을 따돌리고 최고 자리에 올랐다. 어시스트에서는 2년 연속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득점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석권한 건 허훈이 처음이다.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MVP에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 삼성과의 마지막 경기에선 12분55초만 뛰며 6강 플레이오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KT

는 77-93으로 패했다. 경쟁 상대인 송교창은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이상 국내선수)에서 각각 15.1점, 6.1개로 모두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허훈은 오는 11일 시작하는 안양 KGC인사공사와의 6강 플레이오프 출격을 앞두고 있다. 국내선수와 외국인선수를 모두 포함한 평균 득점에선 손 룡(현대모비스)이 21.3점으로 1위에 올랐다. 유일한 20점대 득점이다. 룡은 리바운드 부문(10.8개)도 차지했다. 국내선수 중에선 양홍석이 6.7개로 1위를 차지했다. 볼록은 아이제아 히스(삼성·1.5개), 스틸은 이대성(오리온·1.9개), 3점수는 전성현(인삼공사·2.6개)이 차지했다. 닉 미네라스(SK)은 자유투 성공



률(83.4%), 클리프 알렉산더는 필드골 성공률(63.3%), 김동욱(삼성)은 3점슛 성공률(43.9%)에서 1위에 올랐다. 10일 고양 오리온-인천 자랜드의 6강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봄 농구’에 돌입한다.